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8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18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이개호 · 김문수
안도걸 · 소병훈 · 주철현
박홍배 · 정동영 · 김용민
박균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.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 · 보존 · 조사 · 연구 · 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.

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· 과천 · 청주에,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 · 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.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.

이에,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

설).

법률 제 호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
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설립과 운영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설립과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<u>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